

■ 2023년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방(하반기) 지원심의 총평

- 심의회의 명 : 2023년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방(하반기) 입주작가 선정 심의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28일, (수) 16:00 / 명동 서울프린스호텔 회의실

작가에게 글을 쓰는 환경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적어놓으니 '무슨 소리가! 무릇 프로 작가라면 언제 어디서든 일정 수준 이상의 글을 써낼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다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맞는 말이다. 마감이 코앞에 놓였을 때는 지하철 전동차에 앉아 온몸을 뒤흔드는 진동과 정신을 짓뭇개는 소음을 모두 밀어내고 모바일 화면을 들여다보며 단어와 문장을 보태거나 고치기도 한다. 아주 가끔이지만 영감이라는 게 찾아와주는 순간에도 그렇게 한다. 그렇더라도 지하철 전동차와 호텔 객실은 엄연히 다른 공간이다.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객실은 글을 구상하고 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일종의 특별한 체험이지 않겠나 하는 소리다.

이번 2023년 하반기 '소설가의 방' 지원 사업에는 총 23명의 작가가 신청했다. 심의 위원들은 이 특별한 체험을 작가로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신청서를 살폈다. 신청서의 어떤 문항은 일반적인 것 이상의 내용을 기술하기가 까다로운 듯해서 적절한 문항을 더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화예술위원회 쪽에 전하기도 했다. 다소 포괄적인 질문임에도 본인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서 우리의 눈길을 끈 지원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해주신 여섯 작가님들께 표를 던졌고 무난하게 합의했다. 심의에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입주 일정을 의논하면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예비 후보로 두 분을 더 지정해두었다.

데뷔 10년 이하의 신진작가에게 제공되는 기회이긴 하나 호텔에 머무는 동안은 스스로를 대문호라고 생각해봐도 좋겠다. 로비에 들어서게 자연스러워졌을 때나 직원분들과 얼굴을 익혀갈 때의 느낌이 생생하다. 가슴뼈 언저리가 막 빠근해지는 그런 건데, 부디 만끽하길 바란다. 앞으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는 중요한 기억이 된다. 아쉽게 기회가 미루어진 다른 동료 작가들을 위해서도 차고 넘치게 체험하셔야 한다. 작가의 교양과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호기심을 한껏 드러내고, 그렇게 호텔과 호텔 주변을 샅샅이 알고 나오시면 좋겠다. 작가적 상상력으로 객실 창밖 풍경을 만들어보시면 더 좋다. 어떤 날은 지중해가, 어떤 날은 초원이, 또 어떤 날은 오로라가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문장에 잘 스미길 기원한다.

심사위원 일동